

『靈樞·官能』에 對한 研究

金秀卿·李南九

東新大學教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 Study on the *Young chu*(靈樞) ·*Guanneung*(官能)

Young chu ·Guanneung(官能), It is describe the principle that be mainly used at acupuncture. Frist of all, It is focused when we use acupuncture, understand physiology of human body, *Yin-Yang*(陰陽), *Han-Eul*(寒熱 cool and hot), *Heo-Sil*(虛實) of disease, and then determine treatment either replenishing or reduction by acupuncture, and argue about method of acupuncture and replenishing and reduction.

It is explained when the doctor treat disease, understand many situation to be avoided, and determine method of acupunctural treatment, and it is explained when invading pathogenic factor injure human body, many other symptoms are appeared in many other conditions, and emphasizes when the doctor cure patient, treatment in early stagy is very important. At last, it is explained in teaching pupils, grasp ability and personality, and then teach suitable technique, and never teach technique to inappropriate pupils.

Concretely say that, in the first chapter, It is explained there are several preconditions in using acupuncture, that makes treatment method be perfect, and that is possible, when physiology of human body and pathogenic mechanism are grasped.

In the second chapter, continuing previous chapter, it is displayed that grasping principles of meridians in using acupuncture, and a few acupuncture methods with several examples.

In the third chapter, it is explained when we use acupuncture, grasp timing and laws of earth and then determine treatment either replenishing or reduction, importance of early treatment, and explains about reinforcing or reducing by twisting and rotating needle.

In the forth chapter, it explains about medical virtue, it is emphasized when he is capable about given duty, it is accomplished successfully , because of various congenital ability.

Key Words : *Guanneung*(官能), *Yin-Yang*(陰陽), *Han-Eul*(寒熱), *Heo-Sil*(虛實), *meridians*(經絡), *acupuncture*(鍼刺), *medical virtue*(醫德).

I. 緒 論

·접수 : 2000년 1월 18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이남구,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
 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061-330-3525, ngoo@red.dongshinu.ac.kr)

「官能」은 『靈樞』 卷十一第七十三에 編述되어 있는
데, 『太素』에는 卷十九 知官能에, 『甲乙經』에는 卷五

第四에, 『類經』에는 卷十九 「鍼刺類九鍼推論官能」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四章, 『靈樞經校釋』에는 모두 十六章, 『靈樞經語譯』에는 七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黃帝內經章句索引』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의 名稱은 官能으로 되어 있는데 官이란 말기다의 뜻이고, 能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事物에 대한 對處能力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능력뿐만 아니라 隱然中에 사람의 됄됨이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本篇題目的 뜻은 사람의 能力이나 됄됨이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일을 맡겨야 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醫者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本篇은 주로 鍼을 使用할 때의 道理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鍼을 活用할 때에는 가장 먼저 人體의 生理와 疾病의 陰陽, 寒熱, 虛實 등을 파악한 다음에 補瀉를 決定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외에 各種 鍼刺方法을 상세히 論하고 있다. 또한 病을 다스릴 때에는 天忌를 알아서 이에 알맞게 刺鍼을 해야 한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고, 邪氣가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現狀을 나타낸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疾病을 다스리고자 할 때에는 早期治療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능력이나 됄됨이를 잘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技術을 傳受해야 하고, 사람의 능력이나 부족한 사람에게는 醫術을 함부로 傳受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第一章은 刺鍼에는 몇 가지 前提條件이 있는데, 人體의 生理와 病理機轉을 제대로 把握해야 診斷이 이루어지고, 治法도 그에 따라 完전해질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第二章은 第一章에 이어 刺鍼에는 經絡의 理致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과, 몇 가지 病證을 例로 들어 具體的인 刺鍼法을 提示하고 있다. 第三章에서는 鍼을 活用함에는 天時와 地理를 잘 파악하여 그 虛實에 따라 適切히 鍼을 驅使해야 한다는 점과, 早期治療의 重要性, 그리고 員方補瀉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第四章에서는 醫德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사람은 나뉠의 能力과 品性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알맞은 所任을 맡겨야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本篇은 醫學을 하는 가운데 일상 부딪치는 醫德, 鍼灸補瀉法 등에 대한 問題를 다루고 있으나, 本文가운데는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우므로,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 方法

本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參考하여 內容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풀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2. 研究 資料

〈表.一〉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靈樞校注語譯明刻本	明本
7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抄本	日抄本
11	『黃帝內經太素』	太素
12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3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 釋 家	時 代	書 目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年	靈樞縣解	黃
6	丹波元簡	1808년	靈樞識	丹波
7	楊維傑	民國65年	黃帝內經譯解(靈樞)	傑
8	蒧江拙齋	1981年	靈樞講義	蒧江
9	郭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郭
10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III. 本 論

第一章. 刺道

【原 文】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하니 衆多矣
 다 不可勝數^하니 余推而論之^하여 以爲一紀^하여 余
 司誦之^리니 子聽其理^하고 非則語余^하여 請正其道¹⁾
^하소서 令可久傳^하고 後世無患^하여 得其人^이면 乃
 傳^이어니와 非其人^이면 勿言^하리이다
 岐伯^이 稽首再拜曰 請聽聖王之道^하노이다

黃帝曰 用鍼之理는 必知形氣之所在와 左右上下와 陰陽表裏와 血氣多少와 行之逆順과 出入之合이라야 謀伐有過²⁾라 知解結하며 知補虛寫實에 上下氣門³⁾하며 明通於四海⁴⁾하며 審其所在 寒熱淋露⁵⁾에 以輸異處⁶⁾하며 審於調氣하며 明於經隧하여 左右肢絡⁷⁾에 盡知其會라

寒與熱爭에 能合而調之요 虛與實隣⁽¹⁾에 知決而通之⁽²⁾⁽⁸⁾요

左右不調에 把而行之⁽³⁾⁽⁹⁾나 明於逆順이라야 乃知可治라

陰陽不奇⁽⁴⁾ 故로 知起時요 審於本末하며 察其寒熱하며 得邪所在면 萬刺不殆하나니 知官九鍼이라야 刺道畢矣니라

【字句解】

- (1) 隣: 近也 가까운 린.
- (2) 決而通之: 決斷을 내려 陰陽을 서로 통하게 함.
- (3) 把而行之: 脈을 잡아 診察함, 或은 繆刺法.
- (2) 奇: 때 못만날(不遇也) 기. 혹은 倚의 假借字.

【校勘】

1) 請正其道: 原本에는 '請其正道'로 되어 있으나 文脈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胡本, 周本, 明本, 藏本에 依據하여 '請正其道'로 바꾼다. 또한『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請受其道'로 되어 있다.

2) 謀伐有過:『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誅伐有過'로 되어 있다.

3) 上下氣門:『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上下之門'으로 되어 있다.

4) 明通於四海:『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明於四海'로 되어 있다.

5) 寒熱淋露:『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審寒熱淋露'로 되어 있다.

6) 以輸異處:『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榮輸異處'로 되어 있다.

7) 左右肢絡:『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左右支絡'으

로 되어 있다.

8) 知決而通之:『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和決而通之'로 되어 있다.

9) 把而行之: 胡本, 明本, 藏本에는 '犯而行之'로 되어 있다.

【較註】

[1]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矣 不可勝數 余推而論之 以爲一紀 余司誦之 子聽其理 非則語余 請正其道 令可久傳 後世無患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

楊張·景岳校釋은 "道라는 것은 넓고도 커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니, 내 그대에게 이를 배워 그 道理를 미루어 찾고 疑問나는 곳을 窮究하여 열 가운데 이 삼 째는 터득하게 되었다. 내 이제 외워 보일테니 그 말 가운데 不當하거나 不可한 점이 있으면 내 반드시 理致에 합당하게 할 것이고 전해줄 만한 사람에게 전해 서 오래도록 後代에 전해져 事物을 이롭게 해주기를 바란다. '以爲一紀'라는 것은 歸納하고 整理하여 條理를 分明하게 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요점만을 뽑아 體系的인 理論을 만드는 것이다."1)고 하였다.

[2] 用鍼之理 必知形氣之所在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多少

楊馬張은 "鍼을 사용하는 道理는 반드시 形氣의 有餘와 不足을 알아야 하니, 或 形은 盛한데 氣는 衰하고 或 氣는 盛한데 形은 衰하며 或 形과 氣가 모두 盛하고 或 形과 氣가 모두 衰하며, 病이 左側에 있는지 右側에 있는지 上部에 있는지 下部에 있는지 陰에 있는지 陽에 있는지 表에 있는지 裏에 있는지와 或 血은 많고 氣는 적거나 或 血은 적는데 氣는 많거나 或 血氣가 다 많거나 或 血氣가 다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

1) 楊: 言道之博大는 不可勝數하니 余學之於子하여 推尋窮問其理하여 十有二載라 余今司而誦之하여 以示於子리니 其言有不當不可면 余必當合理하고 余望傳乎所授之人하여 傳之後代에 使久而利物也라하니라 ○張: 按 권대 此篇은 乃全經之總綱이니 帝平時詳析諮訪於伯하여 已得其宗旨 故로 復宣揚以發明之라 故로 曰余聞九鍼於夫子衆多矣하여 不可勝數나 余推而論之하여 以爲一紀라하니 紀는 綱也라 ○景岳: 一紀者는 彙言也라 ○校釋: 以爲一紀는 歸納整理하여 使條理分明하고 完整扼要하여 成爲系統的理論이라

이다.”²⁾고 하였다.

[3] 行之逆順

楊은 “營氣는 經脈을 따라 운행하고 衛氣는 經脈에逆行한다.”³⁾하였고, 馬張景岳校釋은 “陰氣는 다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머리에 이른 다음 下行하여 팔을 循行하고, 陽氣는 손에서부터 上行하여 머리에 이른 다음 下行하여 다리에 이르기 때문에 陽病은 위 끝까지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고 陰病은 아래 끝까지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는데 이와 相反된 것을 다 逆이라고 한다.”⁴⁾고 하였다.

[4] 出入之合 謀伐有過

楊馬張景岳語譯은 “出入之合이라는 것은 血氣가 出入되고 離合하는 곳이 있음을 말한 것이고, 謀伐有過는 邪氣惡血을 誅伐하는 것이다.”⁵⁾고 하였다.

- 2) 楊: 帝誦岐伯所授鍼理章句가 凡有四十七章이라 形之所在肥瘦와 氣之所在虛實이 一也라 肝生於左하고 肺藏於右하고 心部於表하고 腎居於裏하며 男女左右와 陰陽上下를 并得知之니 二也라 五藏爲陰居裏하고 六府爲陽居表하니 三也라 三陰三陽之脈은 知其血氣之多少니 四也라 ●馬: 凡用鍼之道는 必知人之形氣有餘不足이니 或形盛氣衰하고 或氣盛形衰하며 或形氣皆盛하고 或形氣皆衰하며 病之在左在右와 在上在下와 在陰在陽과 在表在裏와 或血多氣少커나 或血少氣多커나 或血氣皆多커나 或血氣皆少라 ○張: 此篇은 論用鍼之理가 必明知陰陽血氣之流行出入逆順淺深과 五臟六腑之經隧配合와 虛實徐疾이라야 而鍼論畢矣라 形氣之所在와 左右上下와 陰陽表裏와 血氣多少는 此形中之陰陽血氣也라
- 3) 楊: 營氣는 順脈하고 衛氣는 逆行하니 五也라
- 4) 馬: 其脈之所行에 有逆有順하니 如手太陰이 自中府而出於少商者爲順이요 自少商而至於中府者爲逆이라 ○張: 行之逆順者는 皮膚經脈之血氣가 交相逆順而行也라 ●景岳: 陰氣는 從足上行至頭하여 而下行循臂하고 陽氣는 從手上行至頭하여 而下行至足 故로 陽病者는 上行極而下하고 陰病者는 下行極而上하니 反者를 皆謂之逆이라 ○校釋: 指經氣運行之逆順情況이라
- 5) 楊: ●血氣有出入合處하니 六也요 誅伐邪氣惡血이니 七也라 ○馬: 有出有入하니 如自表而之裏爲入이요 自裏而之表爲出이라 然後에 卽其犯病而爲有過者는 則謀伐之라 ○張: 出入之合者는 經脈外內之氣血이 有本標之出入하여 有離而有合也라 謀伐有過者는 謂有過之脈을 宜伐而去之라 ○景岳: 經氣는 自內而出하고 自外而入하여 俞有不同이라 知其出入이면 則可因過而伐之也라 ○語譯: 謀伐有過의 有過는 指邪氣惡血이라

[5] 知解結

楊馬張景岳語譯은 “解結의 結은 陰部位나 陽部位의 積聚나 邪氣가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⁶⁾고 하였다.

[6] 知補虛瀉實 上下氣門

楊馬張景岳校釋은 “上下氣門은 諸經標本氣街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手經이 上이고 足經이 下이다. 氣脈이 유래되는 곳이 門戶이다.’고 했으니 또한 通한다.”⁷⁾고 하였다.

[7] 明通於四海

楊馬張은 “髓, 血, 氣, 穀의 四海에 虛實所在를 살펴 이를 알아야 한다.”⁸⁾고 하였다.

[8] 審其所在 寒熱淋露 以輸異處

楊은 “露風으로 因하여 寒熱이 생기기 때문에 寒熱淋露라고 한 것이다. 五行의 榮穴과 輸穴은 위치가 다르다.”⁹⁾고 하였고, 馬는 “그 곳에 있는 病이 或 寒熱이 되었는지 或 淋露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니, 이것은 아마도 歲露篇의 이른바 歲露에 感觸된 것을 말한 것 같다. 이는 輸穴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¹⁰⁾고 하였으며, 張은 “寒熱은 陰陽血氣이고 淋露는 中焦에서 생기는 津液이다. 審其所在 以輸異處라는 것은 體中の 宗氣가 經脈의 外內로 轉輸되어 呼吸漏下와 相應

- 6) 楊: 結은 謂病脈堅聚니 破而平之니 八也라 ○馬: 知解其所結이라 ○張: 知解結者는 謂契紹之門戶에 有所結而不通者를 宜解之니 此는 言血氣之流行於經脈外內之間에 或留積於脈內하고 或阻滯於氣街之門也라 ○景岳: 結者는 邪之所聚니 刺去其邪가 卽解結之謂也라 ●語譯: 解結의 結은 謂陰陽積聚라
- 7) 楊: 能知補瀉上下之氣니 九也라 ○馬: 知虛者는 則補하고 實者는 則瀉라 又知脈之上下於氣門이니 卽氣穴也라 ○張: 知補虛瀉實上下氣門者는 知六腑氣街之門戶와 虛實之堅軟者가 則知補瀉之所在也라 ●景岳: 上下氣門은 卽經絡類諸經標本氣街之義라 一曰 手經爲上이요 足經爲下라 氣脈必由之處가 是爲門戶라 하니 亦通이라 ○校釋: 氣門은 這裏指俞穴而言이라
- 8) ●楊: 髓血氣穀四海에 審知虛實所在니 十也라 ○馬: 又知脈之流通於四海라 ○張: 明通於四海者는 知體中衝脈胃腑腦髓之出入也라
- 9) 楊: 因於露風하여 生於寒熱 故로 曰寒熱淋露니 十一也라 五行榮輸有異하니 十二也라
- 10) 馬: 審其所在之有病이 或爲寒熱하고 或爲淋露하니 疑卽歲露篇之所謂遇歲露也라 以其輸穴이 必皆異處라

하는 이치와 衝脈의 血氣가 半은 十二經脈가운데로 轉輸되고 半은 皮膚 밖으로 흩어지는 이치와 胃腑에서 생기는 津液이 骨로 注入되어 腦髓를 補益하는 이치를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다.”¹¹⁾고 하였고, 景岳은 “비에 젖고 바람에 노출되어 邪氣에 感觸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경로를 알아야 된다.”¹²⁾하였으며, 校釋은 “淋露는 疲困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¹³⁾고 하였고, 丹波는 “淋露는 淋瀝과 의미가 같으니,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은 증세로 病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이다.”¹⁴⁾고 하였다.

[9] 審於調氣 明於經隧 左右肢絡 盡知其會

楊馬張·景岳은 “調氣라는 것은 虛實往來를 살펴 調和시키는 것이다.”¹⁵⁾고 하였다.

[10] 寒與熱爭 能合而調之

楊馬張·景岳은 “陰陽의 氣가 不和하여 寒熱이 발생된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조화시킬줄 알아야 한다.”¹⁶⁾고 하였다.

- 11) 張: 寒熱은 陰陽血氣也요 淋露는 中焦所生之津液也라 審其所在以輸異處者는 當知膈中之宗氣가 輸於經脈之外內하여 以應呼吸漏下者也와 衝脈之血氣가 半輸於十二經脈之中하고 半散於皮膚之外者也와 胃腑所生之津液이 淖澤注於骨而補益腦髓者也라
- 12) 景岳: 淋於雨하고 露於風하여 邪感異處하니 當審其經也라
- 13) 校釋: 淋露는 作疲困解라
- 14) 丹波: 蓋淋露는 與淋瀝으로 同義니 謂如淋下露滴하여 病經久不止라
- 15) 楊: 審吐納導引하여 以調氣니 十三也라 經은 正經奇經也요 隧는 諸絡也라 故로 曰寫其經隧하되 無傷其經이 卽其信也니 十四也라 支絡은 小絡也라 皆知小絡所歸와 大絡會處니 十五也라 ○馬: 當審於調其脈氣之往來하고 明於十二經脈之經隧 及左右支絡하여 盡知其會가 可也라 ○張: 審於調氣明於經隧者는 知胃腑所出之血氣가 注於經隧니 經隧者는 五臟六腑之大絡也라 左右支絡盡知其會者는 左注右而右注左하여 左右上下로 與經相干하여 布於四肢하고 出於絡脈하여 與脈外之氣血로 相會於皮膚分肉間也라 ●景岳: 調氣者는 察其虛實往來하여 而調和之也라
- 16) ●楊: 陰陽之氣不和者를 皆能和之니 十六也라 ○馬: 若寒與熱爭이면 則能合陰陽而調之라 ○張: 寒與熱爭者는 陰陽之氣不和也라 故로 當合而調之라 ○景岳: 合陰陽而調其平也라

[11] 虛與實隣 知決而通之

楊馬張·景岳은 “隣은 가깝다는 뜻이니, 가까우면 의심스러워지기 쉽고 의심스러우면 似而非를 옳은 것으로 여겨 氷炭과 같이 서로 相反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決斷을 내려 陰陽을 서로 통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¹⁷⁾고 하였다.

[12] 左右不調 把而行之 明於逆順 乃知可治

楊은 “把는 持의 뜻이다. 人身左右脈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左右 寸口와 人迎을 把持하여 診察하므로써 氣의 逆順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¹⁸⁾고 하였고, 馬張은 “左右가 고르지 않은 경우는 人迎과 氣口가 不和한 것이므로 혼동하여 치료할 수 있다.”¹⁹⁾고 하였으며, 景岳은 “邪氣가 大絡으로 侵犯하면 左側에 들어온 邪氣는 右側으로, 右側으로 들어온 邪氣는 左側으로 注入된다. 把而行之는 바로 이 경우에 활용하는 繆刺이다.”²⁰⁾고 하였다.

[13] 陰陽不奇 故知起時

楊은 “奇는 分의 뜻이다. 陰陽의 脈이 서로 併合되어 분리되지 않으면 이를 진찰하여 病이 일어난 시간을 알 수 있다.”²¹⁾고 하였고, 馬張은 “人身에 이는 陰經, 陽經은 서로 서로 配合되니, 奇異한 증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各經이 起始하는 때를 알 수 있다.”²²⁾고

- 17) 楊: 隣은 近也라 虛實二氣不和를 通之使平이니 十七也라 ○馬: 若虛與實隣則知決虛實而通之라 ○張: 虛與實隣者는 血與氣之不和也라 故로 知決而通之라 ●景岳: 隣은 近也니 近則易疑하고 疑則以似爲是하여 氷炭相反矣라 故로 當知決而通之라
- 18) 楊: 把는 持也라 人身左右脈不調者를 可持左右寸口人迎하여 診而行之하여 了知氣之逆順이라야 乃可療之니 十八也라
- 19) 馬: 設不能調其左右면 是謂犯而行之也라 故로 必明於逆順이라야 乃知可治라 ●張: 左右不調者는 人迎氣口之不和 故로 當犯而行之라
- 20) 景岳: 邪客大絡者는 左注右하고 右注左하니 把而行之는 卽繆刺也라
- 21) 楊: 奇는 分也라 陰陽之脈相并하여 渾而不分이면 候之知其病起之時니 十九也라
- 22) ●馬: 況人身陰陽諸經은 相爲配合하니 未嘗有奇行者는 能知各經之所起라 ○張: 陰陽不奇者는 臟腑陰陽이 交相配合하고 十二經脈이 交相貫通也라 故로 知起時者니 如乘秋則肺先受邪와 乘春則肝先受邪之類也라 如春甲乙傷於風者爲肝風과 以夏丙丁傷於風者爲心風之類

하였으며, 景岳은 “奇는 不遇의 뜻이므로 不奇는 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病이 일어나는 때를 알 수 있다.”²³⁾고 하였고, 校釋語譯은 “周禮大祝杜注에 奇는 倚라고 읽는다”고 하였는데 倚에는 偏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陰陽不奇는 陰陽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²⁴⁾고 하였다.

[14] 審於本末 察其寒熱 得邪所在 萬刺不殆 知官九鍼 刺道畢矣

楊馬張·景岳은 “本末은 標本이고, 寒熱은 陰陽이다. 所在는 三部九候 가운데 病脈이 있는 곳이다. 官은 任의 뜻이다. 九鍼이 不同하여 各各 쓰이는 곳이 다르므로 以上의 方法을 알아 任意대로 活用하면 刺鍼의 道理는 끝나는 것이다.”²⁵⁾고 하였다.

【考 察】

1. ‘行之逆順’을 楊은 營氣는 經脈을 順行하고 衛氣는 經脈에 逆行한다고 하였고, 馬張·景岳·校釋은 經脈의 走行이 正常的이면 順이고, 經脈의 走行이 非正常的이면 逆이라고 하였다. 楊의 見解는 獨特하나 營氣와 衛氣는 같이 循行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서로 相反되게 運行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也요 以冬遇此者爲骨痺와 以春遇此者爲筋痺之類也라 如正月太陽寅 故로 爲腰月佳腫痛이요 陽明者는 午也니 陽盛而一陰加之라 故로 洒洒振寒之類也라 如手太陽之筋病을 名曰仲春痺요 足少陽之筋病을 名曰孟春痺也니 蓋知臟腑之陰陽 故로 知病起之時也라

23) 景岳: 奇는 不遇也니 不奇는 則和矣라 故로 知起時라

24) ◆校釋: 周禮大祝杜注에 奇는 讀曰倚라하니 倚有偏義하니 陰陽不奇는 則陰陽不偏之義라 ○語譯: 周禮大祝杜注에 奇는 讀曰倚라하니 倚有偏義라 陰陽不偏은 與上明于逆順으로 錯綜相對라

25) 楊: 妙通標本則知寒熱二邪所在라 故로 無危殆니 是爲官主九鍼之道니 二十也라 ○馬: 審於本末寒熱하여 得邪所在而刺之면 則雖萬刺나 可以不殆矣라 然이나 九鍼不同하여 各有所宜하니 能任而用之면 此刺道之所以畢也라 ○張: 本末은 病之本標也요 寒熱은 陰陽之邪也라 用鍼之理에 知陰陽血氣之流行出入則知邪之所在矣라 ●景岳: 本末은 標本也요 寒熱은 陰陽也라 所在는 三部九候之病脈處也라 官은 任也라 九鍼不同하여 各有所宜하니 能知以上之法하여 而任用之면 則刺道畢矣라

2. ‘謀伐有過’에서 ‘謀’가 『太素』에는 ‘誅’로 되어 있는데 文脈上 이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3. ‘寒熱淋露’는 諸家の 의견이 분분하나 문맥상 寒熱은 病所의 증상, 淋露는 병의 원인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 같다.

4. “左右不調 把而行之”를 左右의 脈이 고르지 않을 때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치료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陰陽不奇’의 奇를 해석함에 있어 대체로 ‘分’, ‘奇異’, ‘不遇’, ‘倚’로 해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같다.

【直 譯】

黃帝가 岐伯에게 물으셨다. “내가 夫子에게 九鍼에 대해 들어보니,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나 내 이를 推論하여 체계를 세웠습니다. 내 이를 暗誦해 보일 터이니 그대가 이 理論을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나에게 이야기 해주어 바르게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 해주면 후세에 오래도록 傳해지고 憂患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傳해줄 것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岐伯이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하였다. “聖王의 道를 듣고자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鍼을 사용하는 道理는 반드시 形氣의 所在와 左右上下와 陰陽表裏와 血氣多少와 經氣 運行의 逆順과 經氣가 出入하는 곳을 알아야 잘못된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結聚된 곳을 풀줄 알아야 하며, 虛한 곳을 補하고 實한 곳을 寫할때에 上下에 있는 氣穴을 알아야 하며, 四海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확실히 통해야 하며, 病의 所在가 寒熱淋露에 輸穴을 달리함을 알아야 하며, 氣를 고르게 할 줄 알아야 하며, 經隧에 밝아 左右로 肢絡이 어디에서 만나는 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寒熱이 다들 때에는 이를 調和시켜야 하고, 虛實이 가까이 섞여 있을 때에는 이를 開뜨려 通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左右가 고르지 않을 때에는 左右 脈을 붙잡아 진찰해야 하니, 逆順의 理致에 밝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陰陽이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

에 病이 일어난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本末과 寒熱을 살펴 邪氣가 있는 곳을 알면 몇 번을 刺鍼해도 위태롭지 않으니, 九鍼의 용도를 알아야 刺鍼의 道理가 끝납니다.”

第二章. 鍼論

【原文】

明於五輸⁽¹⁾하여 徐疾⁽²⁾所在과 屈伸⁽³⁾出入에 皆有條理⁽⁴⁾라

言陰與陽이 合於五行⁽⁵⁾하니 五藏六府도 亦有所藏이라

四時八風이 盡有陰陽⁽⁶⁾하니 各得其位⁽⁷⁾하여 合於明堂⁽⁸⁾하여 各處色部⁽⁹⁾하니 五藏六府에 察其所痛⁽¹⁰⁾하고 左右上下에 知其寒溫이 何經所在⁽¹¹⁾라

審皮膚之寒溫滑濇⁽¹²⁾이⁽¹³⁾면 知其所苦⁽¹⁴⁾요 膈有上下⁽¹⁵⁾하니 知其氣所在⁽¹⁶⁾라

先得其道⁽¹⁷⁾하여 稀而疏之⁽¹⁸⁾하고 稍深以留⁽¹⁹⁾故⁽²⁰⁾로 能徐入之⁽²¹⁾라

大熱在上⁽²²⁾하면 推而下之⁽²³⁾하고 從下上者⁽²⁴⁾는 引而去之⁽²⁵⁾하되

視前痛者⁽²⁶⁾를 常先取之⁽²⁷⁾라

大寒在外⁽²⁸⁾하면 留而補之⁽²⁹⁾하되 入於中者⁽³⁰⁾는 從合⁽³¹⁾寫之⁽³²⁾하고 鍼所不爲⁽³³⁾면 灸之所宜⁽³⁴⁾라

上氣不足⁽³⁵⁾하면 推而揚之⁽³⁶⁾하고 下氣不足⁽³⁷⁾하면 積而從之⁽³⁸⁾하되

陰陽이 皆虛⁽³⁹⁾하면 火自當之⁽⁴⁰⁾요 厥而寒甚⁽⁴¹⁾하여 骨廉陷下⁽⁴²⁾하고 寒過於膝⁽⁴³⁾하면 下陵三里⁽⁴⁴⁾라

陰絡所過⁽⁴⁵⁾하여 得之留止⁽⁴⁶⁾커나 寒入於中⁽⁴⁷⁾이면 推而行之⁽⁴⁸⁾하되

經陷下者⁽⁴⁹⁾는 火則當之⁽⁵⁰⁾요 結絡이 堅緊⁽⁵¹⁾하면 火所治之⁽⁵²⁾요

不知所苦⁽⁵³⁾면 兩驕之下⁽⁵⁴⁾나 男陰女陽⁽⁵⁵⁾은 良工所

禁⁽⁵⁶⁾이니 鍼論畢矣⁽⁵⁷⁾라

【字句解】

(01) 徐疾: 鍼灸補瀉法中 徐疾補瀉를 말함.

(02) 屈伸: 體位の 屈伸이나 經脈의 往來를 말함.

(03) 條理: 일의 脈絡이나 順序.

(04) 稀而疏之: 鍼을 적게 씀.

(05) 稍深以留: 鍼을 깊이 놓고 留鍼하는 것을 말함.

(06) 推而下之: 鍼을 밀어 넣어 氣를 내림.

(07) 引而去之: 鍼을 당겨 邪氣를 除去함.

(08) 合: 五輸穴中の 合穴.

(09) 推而揚之: 氣를 밀어 올림.

(10) 積而從之: 氣를 下焦에 모아 쌓이게 함.

(11) 推而行之: 鍼을 밀어 넣어 寒氣를 行散시킴.

【校勘】

1) 審皮膚之寒溫滑濇: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審尺之寒溫滑濇’으로 되어 있다.

2) 膈有上下 知其氣所在: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膈有上下 知氣所在’로 되어 있고, 『甲乙』卷五 第四에는 ‘膈有上下 知其氣之所’로 되어 있다.

3) 稍深以留: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稍深以留之’로 되어 있다.

4) 能徐入之: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能徐之’로 되어 있다.

5) 視前痛者: 張馬合本과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視前病者’로 되어 있다.

6) 灸之所宜: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火之所宜’로 되어 있다.

7) 經陷下者 火則當之: 周本에는 ‘結陷下者 火則當之’로,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經陷下 火則當之’로, 『甲乙』卷五 第四에는 ‘經陷下者 即火當之’로 되어 있다.

8) 男陰女陽: 『太素』卷十九 知官能과 『甲乙』卷五 第四에는 ‘男陽女陰’으로 되어 있다.

【較註】

[1] 明於五輸 徐疾所在 屈伸出入 皆有條理

楊은 “藏府의 經脈에 各其 五輸가 있음을 알고 輸穴 가운데에 徐疾補瀉해야 할 곳을 아울러 알아야 한다. 鍼을 施行할 때에는 體位의 屈伸을 알아야 하고 鍼을 刺入하고 뺄 때에 이런 이치를 모두 알아야 한다.”²⁶⁾ 고 하였고, 馬·張·景岳은 “五臟에 井榮俞經合의 五俞穴이 있고, 六腑에 井榮俞原經合의 六輸穴이 있다. 그러나 六腑의 原穴은 五臟의 俞穴과 같으므로 다 五輸라고 부를 수 있다. 徐疾이라는 것은 鍼法이고, 屈伸出入이라는 것은 經脈의 往來이다.”²⁷⁾ 고 하였다.

[2] 言陰與陽 合於五行 五藏六府 亦有所藏

楊은 “陰陽의 氣가 나뉘어 五行이 됨을 알아야 한다. 五藏은 五神을 간직하고 있고 六府는 五穀을 저장하고 있다.”²⁸⁾ 고 하였고, 馬·景岳은 “言陰與陽 合於五行이라는 것은 陰陽이 나뉘어 五行이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五藏六府 亦有所藏이라는 것은 人身에 陰陽五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니, 예를 들면 肺는 陰, 大腸은 陽, 肺는 金, 肝은 木의 부류와 같은 것들이다.”²⁹⁾ 고 하였다.

[3] 四時八風 盡有陰陽 各得其位 合於明堂 各處色

- 26) 楊: 明藏府之經에 各有五輸하고 輸中補瀉徐疾所在를 並須知之니 二十一也라 行鍼之時에 須屈伸하니 鍼之出入條數를 並具知之니 二十二也라
- 27) ●馬: 五臟有井榮俞經合之五俞하고 六腑有井榮俞原經合之六輸라 然이나 六腑之原이 井於俞하니 則皆可稱爲五輸也라 徐疾者는 鍼法也라 屈伸出入者는 經脈往來也라 ○張: 五輸者는 五臟五輸니 五五二十五輸요 六腑六輸니 六六三十六輸라 本經에 云因其氣之實虛疾徐而治之라 故로 明知五輸之實虛則知疾徐之所在矣라 하니라 其臟腑之十二經脈屈伸出入에 皆有循度之條理也라 ○景岳: 此下는 復詳明鍼論也라 五輸는 井榮俞經合也요 徐疾은 鍼法也며 屈伸出入은 經脈往來也라
- 28) ◆楊: 知分陰陽之氣하여 以爲五行이니 二十三也라 五藏藏五神하고 六府藏五穀하니 二十四也라 ○張: 言陰與陽 合於五行者는 言五藏六府가 合於天之陰陽地之五行也라 五臟六腑 亦有所藏者는 五臟藏五神志하고 六腑傳導水穀하며 膽爲中正之腑요 膀胱爲津液之所藏也라
- 29) ●馬: 言陰與陽 合於五行者는 泛言陰陽分而爲五行也라 五藏六府亦有所藏者는 指人身有陰陽五行也니 如肺爲陰大腸爲陽肺爲金肝爲木之類라 ○景岳: 陰陽之化가 是爲五行이니 藏府所藏도 亦惟此耳라

部 五藏六府 察其所痛 左右上下 知其寒溫 何經所在

楊馬·張·景岳은 “四時八風 盡有陰陽이라는 것은 天道에 陰陽五行이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各得其位 合於明堂 各處色部라는 것은 사람의 面部에 각기 五行의 위치가 있어 明堂과 各處의 色部와 합쳐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面部를 五臟六腑로 나누어 놓으면 몸의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되고 그 色이 左右上下로 나타나면 그것으로 어느 經이 찬지 더운지를 알 수 있다.”³⁰⁾ 고 하였다.

[4] 審皮膚之寒溫滑澹 知其所苦

楊馬·張·景岳은 “皮膚의 寒溫滑澹을 살피면 이것으로 그 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³¹⁾ 고 하였다.

[5] 膈有上下 知其氣所在

楊은 “穀食이 胃로 들어가면 淸氣는 肺로 올라가기 때문에 膈上에 있는 것이고, 濁氣는 胃中으로 留入하여 膈下에 있게 된다.”³²⁾ 고 하였고, 馬·張·景岳·校釋은 “橫

- 30) 楊: 八風은 八節之風也라 四時八節之氣는 各在陰陽之位하니 並合明堂하여 處於五行五色之部라 明堂은 鼻也라 二十五라 候五色之部하여 察知五藏六府하니 二十六也라 察五色하여 知其痛在五藏六府上下左右니 二十七也라 知十二經所起寒溫이 各有主니 二十八也라 ●馬: 四時八風盡有陰陽者는 指天道有陰陽五行也라 各得其位 合於明堂 各處色部者는 言人身之面部가 各得其五行之位하여 合於明堂及各處之色部也라 其面部之分爲五臟六腑者면 可以察其身形之所痛이요 其色見於左右上下者면 可以知其何經之寒溫이라 ○張: 四時八風 盡有陰陽 各得其位 合於明堂者는 五色篇之所謂黃赤爲風이요 青黑爲痛이요 白爲寒이라 五色이 各見其部하니 察其浮沈하여 以知淺深하고 視色上下하여 以知病處也라 五藏六府 察其所痛은 在身形之左右上下하니 則知寒溫之邪가 在於臟腑之何經也라 ○景岳: 天道之陰陽五行也라 邪在於中이면 色形於外하니 察之面部면 疾可知也라 ○語譯: 各處色部는 臟腑有病이면 其色이 必反應於面部之相應部位라 左右上下는 指面部左右上下에 所顯現의 顏色이라
- 31) 楊: 言能審候尺之皮膚니 二十九也라 ●馬: 又審皮膚之寒溫滑澹이면 斯能知其病之所苦也라 ○張: 審皮膚之寒溫滑澹 知其所苦者는 邪氣臟腑病形篇之所謂脈滑者는 尺之皮膚亦滑하고 脈澹者는 尺之皮膚亦澹하며 心脈滑甚爲善渴이요 澹甚爲瘠이 是也라 ○景岳: 寒者는 多陰하고 溫者는 多陽하며 滑者는 多實하고 澹者는 多虛라
- 32) 楊: 穀入於胃에 淸氣上肺 故로 在膈上하고 濁氣留入胃中하여 在於膈下하니 三十也라

膈膜 上下에 分布되어 있는 여러 臟器에서 病氣가 위
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臟器의 病變인지를 알아내야 한
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³³⁾고 하였다.

[6] 先得其道 稀而疏之 稍深以留 故能徐入之

楊은 “補하는 方法은 鍼은 적게 놓되 깊이 놓고 오
래 留鍼하는데 鍼을 놓을 때에는 徐徐히 鍼을 움직여
야 한다.”³⁴⁾고 하였고, 馬는 “稀라는 것은 鍼을 적게
놓는 것이고, 疏라는 것은 鍼孔을 闊大하게 하는 것이
며 深이라는 것은 鍼을 깊이 놓는 것이고, 留라는 것은
오래 留鍼하는 것이다.”³⁵⁾고 하였으며, 張은 “稀而疏之
는 氣를 引導해 나가게 하는 것이고, 稍深以留는 穀氣
를 이르게 하는 것이다. 穀氣가 이미 이른 것을 알기
때문에 鍼을 徐徐히 刺入할 수 있는 것이니 다시 氣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³⁶⁾고 하였고, 景岳은 “이 아래
문장은 鍼法과 灸法을 겹쳐서 말한 것이다. 먼저 經絡
의 길을 알고 그런 然後에 鍼을 쓸 수 있다. 稀而疏之
는 精微하고 적게 鍼을 놓는 것을 貴하게 여기는 것이
고, 稍深以留는 徐徐히 刺入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⁷⁾고
하였다.

[7] 大熱在上 推而下之 從下上者 引而去之 視前痛
者 常先取之

33) 馬: 且膈有上下는 謂心肺居於膈上하고 脾居中州하며
肝腎居於膈下하니 必知其病氣之所在엔 先得其經脈之
道然後에 可以用鍼이라 ○張: 膈有上下 知其氣所在者
는 膈上爲宗氣之海니 上焦開發하여 宣五穀味하여 熏
膚充身澤毛者也 膈下乃胃脾中焦之分이니 三焦出氣
而溫肌肉充皮膚者也라 故로 知其氣之所在하여 先得其
所出之道路라 ○景岳: 膈之上은 膻中也니 爲上氣海하
여 心肺所居하고 膈之下는 脾肝腎所居니 丹田이 爲下
氣海也라 ●校釋: 指橫膈的上下分布着不同的臟器는
應該知其病氣的在上在下하여 以進一步察知何臟的病變
이라

34) 楊: 爲補之道는 希疏深留하고 徐動其鍼하니 三十一
也라

35) 馬: 稀者는 鍼之少也요 疏者는 鍼之闊이며 深者는
深入其鍼也요 留者는 久留其鍼也라

36) 張: 稀而疏之는 以導氣之出也요 稍深以留는 以致穀
氣라 知穀氣已至 故로 能徐而入之니 復使氣之入也라

37) 景岳: 此下는 兼言鍼灸法也라 先得其經絡之道하고
然後에 可以用鍼이라 稀而疏之는 貴精少也요 稍深以
留는 欲徐入也라

楊馬·景岳·語譯은 “大熱이 上部에 있으면 마땅히 鍼
을 밀어 넣어 氣를 내려야 하니, 이른바 高者抑之인 것
이고, 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鍼을 당겨서 그 邪
氣를 除去해야 하니, 이른바 外者發之인 것이다. 視先
痛者常先取穴以刺之는 이른바 모든 病에 반드시 먼저
그 根本을 治療한다는 것이다.”³⁸⁾고 하였다.

[8] 大寒在外 留而補之 入於中者 從合寫之

楊馬·張·景岳은 “大寒이 체표에 있으면 留鍼해서 補
하고 大寒이 內部로 들어가면 合穴을 寫한다.”³⁹⁾고 하
였고, 語譯은 “살펴보면 從合이라는 말은 隨이라는 말
과 같다. 從은 隨로 해석할 수 있는데 詩經既醉篇의
鄭箋에 보인다. 合은 以字와 뜻이 같다. 그러므로 從合
寫之는 隨以瀉之라는 말과 같으니 瀉의 留而補之와
서로 對句를 이룬다. 馬蒔가 合을 合穴로 삼은 것은 안
맞는 것 같다.”⁴⁰⁾고 하였다.

[9] 鍼所不爲 灸之所宜

楊馬·張·景岳은 “寒氣가 體表에서 심해졌다가 속으로
들어온 경우는 陽氣가 아래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鍼을 쓸 수 없으니, 뜸을 뜨는 것이 마땅하다.”⁴¹⁾고 하

38) 楊: 視病熱之上下하여 寫而去之니 三十二也라 ●馬:
即如有大熱在上하면 則當推鍼而使之下니 所謂高者抑
之也요 熱從下而上則當引鍼而去其邪니 所謂外者發之
也라 視先痛者常先取穴以刺之는 所謂凡病에 必先治其
本也라 ○景岳: 推而下之는 推而逐之니 抑其高也라
引而去之는 泄於下也라 常先取之는 先取其本也라 ○
語譯: 從下上者 引而去之는 如病邪從下而上則引而越
之라

39) 楊: 寒在皮膚에 留鍼使鍼下熱이요 寒入骨髓에도 亦
可留鍼使熱하여 寫出寒熱氣니 三十三也라 ●馬: 又大
寒在外則留其鍼以補之하고 大寒入中則從合穴以瀉之라
○張: 太陽之上에 寒氣主之하고 太陽之氣는 主於膚表
하니 大寒在外는 寒水之氣在表也라 故로 當留而補之
니 候陽氣至而鍼下熱이면 補其陽以勝其寒也라 如寒邪
上入於中者는 從合瀉之라 夫合治內腑하니 使寒邪從腸
胃以瀉出之也라 ○景岳: 大寒在外에 補中氣면 可以拒
之요 寫合穴이면 可以除之라

40) 語譯: 從合寫之는 按컨대 從合은 猶言隨이라 從은
訓隨니 見詩既醉鄭箋하니라 合은 與以로 義可互訓이
라 從合寫之는 即隨以瀉之니 與上留而補之로 文正相
對라 馬蒔以合爲合穴은 似不合이라

41) 楊: 脈之陷下는 是灸所宜니 不可鍼也니 三十四也라
○馬: 凡病有鍼所不當用者는 則用灸以治之라 ●張:
夫寒氣之甚於外而入於中者는 因陽氣之在下也라 故로

었다.

[10] 上氣不足 推而揚之 下氣不足 積而從之

楊馬는 “上氣不足은 膈中の 氣가 적은 것이니 推補 하므로서 盛하게 할 수 있다. 揚은 盛이다. 下氣不足은 腎間動氣가 적은 것이니 補氣하므로서 氣를 모을 수 있다. 積은 聚의 뜻이고 從은 順의 뜻이다.”⁴²⁾고 하였고, 張은 “上氣不足者推而揚之와 下氣不足者積而從之는 氣가 人體下部에 뿌리를 두고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⁴³⁾고 하였으며, 景岳은 “推而揚之는 그 氣를 끌어 이르게 하므로서 위를 補하는 것이고, 積而從之는 留鍼하여 氣를 따르므로서 아래를 實하게 하는 것이다.”⁴⁴⁾고 하였다.

[11] 陰陽皆虛 火自當之 厥而寒甚 骨廉陷下 寒過於膝 下陵三里

楊馬·張·景岳語譯은 “만약 陰陽이 다 虛하여 鍼을 쓰기 어려우면 灸法을 쓴다. 또 厥證이 있어 寒氣가 甚하거나 或 骨廉이 陷下되거나 或 寒氣가 무릎을 지나면 三里穴을 취해서 補한다.”⁴⁵⁾고 하였다.

[12] 陰絡所過 得之留止 寒入於中 推而行之

鍼所不能爲者나 灸之所宜라 ○景岳: 凡不宜於鍼者는 當灸以治之라

42) ●楊: 上氣不足은 謂膈中氣少나 可推補令盛이라 揚은 盛也라 下氣不足은 謂腎間動氣少者나 可補氣聚라 積은 聚也요 從은 順也나 三十五也라 ○馬: 又有上氣不足하든 則推入其鍼以揚之而使上氣之足하고 下氣不足하든 則積其鍼以順之而使下氣之足이라

43) 張: 上氣不足者推而揚之와 下氣不足者積而從之는 謂氣本於下之所生也라

44) 景岳: 推而揚之는 引致其氣하여 以補上也요 積而從之는 留鍼隨氣하여 以實下也라

45) 楊: 火氣强盛하여 能補二虛니 三十六이라 ●馬: 若 陰陽皆虛而鍼所難用이면 則用火以灸之라 又有厥而寒甚거나 或骨廉陷下거나 或寒過於膝하든 則取之陵三里以補之라 ○張: 陰陽皆虛 火自當之는 蓋艾能於水中取火하여 能啓陽氣於陰中也라 厥而寒甚은 起於骨廉下之陷中而上逆於膝이니 此寒厥也라 寒厥은 起於足五指之裏하여 集於膝下而聚於膝上이라 蓋氣因於中하여 陽氣衰하여 不能滲榮其經絡하든 陽氣日損하고 陰氣獨在故로 爲之寒이라 是以로 取陽明之下陵三里以補之니 此는 寒厥之在氣也라 ○景岳: 火自當之는 宜於灸也라 若厥而寒甚하여 陽氣大虛면 當灸下陵이니 卽陽明經三里穴也라 ○語譯: 火는 指灸言이요 自는 猶則也라

馬·張·景岳은 “또 陰絡이 지나가는 곳에 寒氣가 머물러 있거나 或은 寒氣가 속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鍼을 推入하여 行散시켜야 한다.”⁴⁶⁾고 하였다.

[13] 經陷下者 火則當之 結絡堅緊 火所治之

楊馬·張·景岳은 “또 經脈이 陷下된 경우에는 오직 灸法만이 해당되고, 또 絡脈이 結聚되어 팽팽해진 경우에도 또한 灸法을 써서 치료해야 한다.”⁴⁷⁾고 하였다.

[14] 不知所苦 兩蹻之下 男陰女陽 良工所禁 鍼論畢矣

楊은 “病에 痛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 陰陽二蹻의 아래를 취할 수 있다. 二蹻의 아래에 男子는 陰蹻, 女子는 陽蹻를 취할 수 있으니, 이것이 痛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病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蹻脈에 있어서는 男子는 陽蹻, 女子는 陰蹻를 취해서는 안 된다.”⁴⁸⁾고 하였고, 馬·張·景岳은 “단지 病이 어디가 괴로운 줄 모르겠으면 男子는 陽蹻가 經이 되고 陰蹻가 絡이 되며 女子는 陰蹻가 經이 되고 陽蹻가 絡이 되므로 男子는 陰蹻를 취해서는 안되고 女子는 陽蹻를 취해서는 안되니 훌륭한 의사들이 禁하는 곳이다.”⁴⁹⁾고

46) ●馬: 又有陰絡所過爲寒留之거나 或寒入於中하든 則必推其鍼而行以散之라 ○張: 若寒氣가 從絡之所過得之면 則留而止之요 如寒入於中이면 則當推而行之니 此는 治寒厥之法也라 ○景岳: 寒留於絡而入於經이면 當用鍼하여 推散而行之라

47) 楊: 絡脈結而堅緊이면 血寒 故로 火攻療니 三十七也라 ●馬: 又有經陷下者는 則惟灸以當之요 又有結絡結而堅緊者도 亦用火以治之라 ○張: 經氣陷下면 以火灸之라 結絡堅緊者는 中有著血하여 血寒 故로 火以治之라 ○景岳: 寒氣凝聚하여 或陷於經하고 或結於絡이면 皆當以火逐之라

48) 楊: 有病不知所痛이면 可取陰陽二蹻之下라 二蹻之下에 男可取陰이요 女可取陽이니 是療不知所痛之病이라 男陽女陰은 二蹻之脈에 不可取之니 三十八也라

49) ●馬: 倘不知病之所苦면 及男子하든는 以陽蹻爲經이요 陰蹻爲絡이며 女子하든는 以陰蹻爲經이요 陽蹻爲絡 故로 男子는 忌取陰蹻요 女子는 忌取陽蹻니 良工所禁이라 此鍼論之所以畢也라 ○張: 調經論에 曰病不知所痛이면 兩蹻爲上이라하니 蓋陽蹻陰蹻는 并起於足踝하여 上循胸裏 故로 痛在蹻脈之上者는 不知痛處也라 是以로 不知所苦痛者는 當取兩蹻於踝下也라 男子數其陽하고 女子數其陰 故로 男取陰而女取陽은 此良工之所禁也라 能知臟腑陰陽寒熱虛實表裏上下補瀉疾徐면 鍼論畢矣라 ○景岳: 寒邪在肌肉血脈之間하여 有不

하였다.

【考 察】

1. '屈伸'은 體位の 屈伸, 經脈流注의 屈伸의 두 가지 學說로 대별된다.

2. "膈有上下 知其氣所在"을 해석함에 있어 楊은 膈上의 清氣와 膈下의 濁氣라고 하였고, 馬張·景岳校釋은 橫膈膜 上下에 分布되어 있는 여러 臟器中에서 病變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또는 어느 臟器의 病變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生理的인 해석과 病理的인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둘 다 나름의 유의성이 있다.

3. "稀而疏之 稍深以留"의 문구중 '稀而疏之'는 대개의 註家들이 鍼을 적게 놓는 方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張隱庵만은 氣를 引導해 나가게 하는 方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稍深以留'는 鍼을 깊게 놓고 留鍼하는 방법이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刺入하는 방법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으나 역시 張隱庵만은 穀氣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다.

4. "大寒在外 留而補之 入於中者 從合寫之"의 문구중 '合'의 해석에 있어 楊馬張·景岳은 '合穴'로 보고 있는데 반해, 語譯에는 從合의 從은 隨로, 合은 以字로 해석하는 독특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5. "上氣不足 推而揚之 下氣不足 積而從之"의 문구를 註家들의 해석을 참조해 보아도 아주 애매모호하여 그 뜻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上氣不足 推而揚之'는 上焦의 氣運이 不足할 때는 氣를 밀어 올리는 方法으로, '下氣不足 積而從之'는 下焦의 氣運이 不足할 때 氣를 下焦에 쌓아 氣가 先天之本인 腎臟으로 모이게 하는 方法으로 우선은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鍼을 어떤 식으로 操作해야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으므로 向後 이에 대한 연구가 진일보 이루어져야 하겠다.

6. '男陰女陽'이 『太素』와 『甲乙』에는 '男陽女陰'으로 되어 있다. 楊註에 男子는 陽蹻脈인 申脈, 女子는 陰蹻

脈인 照海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의 理致上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直 譯】

五輸에 밝아 徐疾의 所在와 屈伸出入에 다 條理가 있어야 합니다. 陰과 陽을 이야기 해 보면 이는 五行에 相合하니 五藏六府도 간직한 것이 있고 四時八風에도 다 陰陽이 있습니다. 陰陽五行은 各其 자기 位置가 있고 明堂에 相合하여 色이 나타나는 部位가 있으니 五藏六府에 病變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面部에서 病色을 살필 수 있고 面部의 左右上下로 病色이 나타나면 어느 經이 차고, 더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皮膚의 寒溫과 滑濇을 살피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고, 橫膈膜을 기준으로 삼아 病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經脈循行의 道理를 파악한 다음에 鍼을 사용하는데 補할때에는 鍼을 적게 사용하여 조심조심 刺入하고 원하는 부위까지 깊이 들어간 다음에 留鍼해야 하기 때문에 徐徐히 刺入하는 것입니다. 大熱이 上部에 있으면 熱을 밀어 내려가게 하고, 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끌어 내려서 없애야 하는데 診察해 보아서 먼저 아픈 곳을 항상 우선적으로 取해야 합니다. 大寒이 체표에 있을 때에는 留鍼하여 補하는데 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合穴을 寫하고 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뜸이 마땅합니다. 上氣가 不足하면 氣를 끌어 올려 盛하게 하고 下氣가 不足하면 留鍼隨氣의 方法으로 아래의 氣를 補하며 陰陽이 다 虛하면 艾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寒氣가 매우 厥逆되어 뼈 주위의 肌肉이 陷下하고 寒氣가 무릎까지 지나가면 下陵三里穴에 뜸을 뜹니다. 寒邪가 陰絡을 지나 이곳에 머물러 있거나 寒氣가 속으로 들어가면 鍼을 推入하여 行散시켜야 하고, 經脈이 陷下된 경우에는 오직 灸法만이 해당되고, 또 絡脈이 結聚되어 뻣뻣해 있는 경우에도 또한 灸法을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病이 어디가 괴로운 줄 모르겠으면 男子는 陽蹻가 經이 되고 陰蹻가 絡이 되며 女子는 陰蹻가 經이 되고 陽蹻가 絡이 되므로 男子는 陰蹻를 취해서는 안되고 女子는 陽蹻를 취해서는 안되니 훌륭한 의사들이 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道理를 다 파악하면 鍼을 活用하는 方法이 完備됩니다.

痛不仁不知所苦者 當灸兩蹻之下 即足太陽申脈과 足少陰照海穴也라 然이나 男子數陽이요 女子數陰이니 若男陰女陽이면 則反用矣라 故로 爲良工之所禁이라 調經論에 亦曰 病不知所痛이면 兩蹻爲上이라하니 與此法으로 同이라

第三章. 鍼刺補瀉法

【原文】

用鍼之服⁽¹⁾은 必有法則⁽²⁾하니 上視天光⁽³⁾하고 下司⁽⁴⁾八正⁽⁵⁾하여 以辟⁽⁶⁾奇邪하고 而觀百姓하여 審於虛實하여 無犯其邪라

是得天之露⁽⁶⁾⁽¹⁾하고 遇歲之虛⁽⁷⁾어늘 救而不勝이면 反受其殃이라

故로 曰 必知天忌⁽⁸⁾라야 乃言鍼意니 法於往古하며 驗於來今하되 觀於窈冥⁽⁹⁾이라야 通於無窮이라하니 臚之所不見이요 良工之所貴니 莫知其形이나 若神髣髴이라

邪氣之中人也 是 洒淅⁽²⁾動形하고 正邪之中人也 是 微하여 先見於色이나 不知於其身하니 若有若無하며 若亡若存하며 有形無形하여 莫知其情⁽³⁾이라 是故로 上工之取氣엔 乃救其萌芽하고 下工은 守其已成하여 因敗其形하니 是故로 工之用鍼也 是 知氣之所在而守其門戶하여 明於調氣補瀉所在와 徐疾之意와 所取之處라

寫必用員⁽¹⁰⁾⁽⁴⁾이니 切而轉之⁽¹¹⁾⁽⁵⁾하면 其氣乃行하고 疾而徐出⁽⁶⁾하면 邪氣乃出하니 伸而迎之⁽¹²⁾하고 遙大其穴하면 氣出乃疾이라

補必用方⁽¹³⁾⁽⁷⁾이니 外引其皮하여 令當其門하고 左引其樞⁽¹⁴⁾하며 右推其膚하여 微旋而徐推之하되 必端以正하며 安以靜하며 堅心無解하고 欲微以留하여 氣下而疾出之하고 推其皮하여 蓋其外門하면 眞氣乃存하니 用鍼之要 是 無忘其神⁽⁸⁾이니이다

【字句解】

(01) 服: 事也 일 복.

(02) 天光: 日月星辰의 運行度數.

(03) 司: 司는 伺와 通하는데, 살피다의 뜻임.

(04) 八正: 八節之正氣. 二分(春分, 秋分)과 二至(夏至, 冬至) 그리고 四立(立春, 立夏, 立秋, 立冬)의 八季節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氣候.

(05) 辟: 避也 피할 피. 물리 칠 벽.

(06) 天之露: 하늘에서 風雨가 不時에 내려오는 것을 말함.

(07) 歲之虛: 歲氣不及의 해로 三虛(年虛, 月虛, 時虛)의 하나 임.

(08) 天忌: 時令과 節氣에 입각해서 鍼刺하기에 適合치 않은 날자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天之露, 三虛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09) 窈冥: 微妙하고 複雜해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變化.

(10) 員: 圓滑流利的 뜻임.

(11) 切而轉之: 病所 가까이 鍼을 놓고 鍼頭를捻轉시킴.

(12) 伸而迎之: 伸은 進鍼, 迎은 鍼尖方向을 經脈流走와 相反되게 하는 것을 말함.

(13) 方: 端正安靜의 뜻임.

(14) 樞: 鍼의 中心.

【校勘】

1) 是得天之露: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是天之露’로 되어 있다.

2) 洒淅: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淅沍’로 되어 있다. *淅은 洫字 혁.

3) 若有若無 若亡若存 有形無形 莫知其情: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若無若亡若存 在形無形 莫知其精’으로 되어 있다.

4) 寫必用員: 『甲乙』卷五 第四에는 ‘寫必用方’으로 되어 있다. 『素問·八正神明論』에도 ‘寫必用方’으로 되어 있다.

5) 切而轉之: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切而傳之’로 되어 있다.

6) 疾而徐出: 『甲乙』卷五 第四와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疾入徐出’로 되어 있다.

7) 補必用方: 『甲乙』卷五 第四에는 ‘補必用員’으로 되어 있다.

8) 無忘其神: 『甲乙』卷五 第四와 『太素』卷十九 知官能

에는 '無忘養神'으로 되어 있다.

【較註】

[1] 用鍼之服 必有法則 上視天光 下司八正 以辟奇邪而觀百姓 審於虛實 無犯其邪 是得天之露 遇歲之虛 救而不勝 反受其殃 故曰必知天忌 乃言鍼意

楊馬張景岳校釋은 "이 아래 글귀는 마땅히 天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也라-----虛風과 實風이 다 사람을 傷할 수 있기 때문에 그 邪氣를 犯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風雨가 不時에 내려오는 것을 다 露라고 하는데, 歲露論에 말하길 '그러므로 風邪에 감촉된데다가 비까지 만난 것을 이음해서 歲露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歲虛라는 것은 歲氣不及의 해와 月空의 날과 그때 그때의 조화를 잃은 것이니, 이들로 인해 賊風의 損傷을 받게 되므로 이를 三虛라고 한다.'고 하였다."⁵⁰⁾

50) 楊: 服은 學習也니 學用鍼法엔 須上法日月星辰之光하고 下司八正風之氣하여 以除奇邪니 三十九也라 而令百姓으로 不犯虛實二邪歲露之忌면 可謂得鍼之旨耳라 天露者는 歲之八正虛邪風雨也니 四十也라 ○馬: 此는 言用鍼之事 必當知天忌也라 服은 事也라 上視天光是 卽八正神明論之所謂天寒無刺 天溫無凝 月生無瀉 月滿無補 月郭空無治者가 是也라 下司八正은 卽八正神明論之所謂八正者니 所以候八風之虛邪以時至者也라 蓋四立二分二至爲八節之正氣라 九宮八風篇有八風八正하니 當以避八風 故로 八正神明論謂八正之虛邪而避之勿犯也라하니라 所謂天之露者는 歲露篇에 黃帝曰願聞歲之所以皆同病者는 何因而然고하여늘 少師曰此八正之候也니 候此者는 常以冬至之日로 太乙이 立於葉蟄之宮하니 其至也에 天必應之以風雨者矣라 風雨從南方來者爲虛風이니 入客於骨而不發於外라가 至其立春하여 陽氣大發한대 風從西方來하여 萬民이 又皆中於虛風하면 此는 兩邪相搏하여 經氣結代者矣라 故로 諸逢其風而遇其雨者를 命曰遇歲露焉이니 蓋指天之風雨爲露也라 所謂遇歲之虛者는 本經歲露篇曰乘年之衰하고 逢月之空하고 失時之和하여 因爲賊風所傷을 是謂三虛라 逢年之盛하고 遇月之滿하고 得時之和하면 雖有賊風邪氣나 不能危之也라하니 故로 得天之風雨而又遇歲之虛면 則雖救之나 而不能勝하여 反受其所害矣라 故로 八正神明論에 又曰天忌不可不知者라하니 此也라 ○張: 閔士先曰 言用鍼之事 當合於天時也라 夫鍼者는 所以候氣 故로 當上視天光이라 因天之序의 盛虛之時와 移光定位를 正立而待者는 俟天之陽以助人之氣也라 下司八正者는 候八風之虛邪以時至也라 虛實者는 人氣之盛衰也라 得天之露者는 清邪中上陽中霧露之氣也라 遇歲之虛者는 逢年之虛커나 值月之空하여 失時之

[2] 法於往古 驗於來今 觀於窈冥 通於無窮 窳之所不見 良工之所貴 莫知其形 若神勞弊

楊馬校釋은 "지나간 옛 聖賢들이 行하였든 바를 본받아 將來 得失의 結果를 미리 헤아리고 또한 當今의 是非形狀을 檢束하며 또한 어둡고 微妙한 道理를 알아 본다. 그러므로 無窮한 理致에 통할 수 있어 얻는 것마다 다 合當하다. 따라서 어리석은 의사들이 마음으로부터 오직 筌에 드러나는 形體만을 보고 참된 道理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훌륭한 제주와 鬼神이 부리는 듯한 기술이 있어 惟獨 그 貴한 醫術을 살필 줄 아니 眞人에 흡사하다."⁵¹⁾고 하였다.

[3] 邪氣之中人也 洒淅動形 正邪之中人也微 先見於色 不知於其身 若有若無 若亡若存 有形無形 莫知其情 是故上工之取氣 乃救其萌芽 下工守其已成 因敗其形

楊馬張景岳校釋語譯은 "邪氣는 虛邪를 말한다. 虛邪가 사람에게 적중되면 증세가 甚하기 때문에 몸이 벌벌 떨리게 되는 것이고, 正邪가 사람에게 적중되면 증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단지 面部의 色에만 異常이 먼저 나타나고 몸에서는 자각증상을 못 느끼게 되는

和니 救而不能勝邪則反受其殃 故로 曰必知天忌라 ○景岳: 此下는 言當知天忌也라 兼人已而言也라 虛風實風이 皆能傷人 故로 無犯其邪라 天之風雨不時者를 皆謂之露라 歲露論에 曰 故로 諸逢其風而遇其雨者를 命曰遇歲露焉이요 歲之虛者는 乘年之衰와 逢月之空과 失時之和니 因爲賊風所傷이니 是謂三虛라하니라 ○校釋: 天之露는 指自然界가 與時令으로 不符의 風雨災害라 歲之虛는 指歲氣不及所出現의 反常氣候니 如春不溫과 夏不熱等이라

51) ○楊: 法於往古聖人所行하여 逆取將來得失之驗하고 亦檢當今是非之狀하며 又觀窈冥微妙之道라 故로 得通於無窮之理하여 所得皆當하여 不似粗工以意로 唯囑其形하고 不見於道하니 有同良才神使하고 獨鑑其所貴하여 勞弊於眞하니 四十一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言 鍼意之妙無形而至神者也라 八正神明論에 岐伯이 曰驗於來今者는 先知日之寒溫과 月之虛盛하여 以候氣之浮沈而調之於身이라야 觀其立有驗也라 觀其冥冥者는 言形氣榮衛之不形於外而工獨知之니 以日之寒溫과 月之虛盛과 四時氣之浮沈으로 參伍相合而調之에 工常先見之나 然이나 而不形於外 故로 曰 觀於冥冥焉이요 通於無窮者는 可以傳於後世也니 是故로 工之所以異也라 然이나 而不形見於外 故로 俱不能見也요 視之無形하고 嘗之無味 故로 謂冥冥이니 若神勞弊이라하니라 ○校釋: 窈冥은 泛指微妙難見的變化라

것이다.-----因敗其形이라는 것은 正邪에 의한 損傷은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큰 손상을 받는 것이다. 所在는 三部九候의 뜻이다.”⁵²⁾고 하였다.

[4] 工之用鍼也 知氣之所在而守其門戶 明於調氣補瀉所在 徐疾之意 所取之處 寫必用員 切而轉之 其氣乃行 疾而徐出 邪氣乃出 伸而迎之 遙大其穴 氣出乃疾 補必用方 外引其皮 令當其門 左引其樞 右推其膚 微旋而徐推之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懈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 眞氣乃存 用鍼之要 無忘其神

楊馬張景岳校釋校釋은 “員은 流利的 뜻이고, 切은

바로 病所를 逼迫하는 것이다. 迎은 奪의 뜻이고, 遙는 搖字와 같다. 鍼을 員活하게 사용해 邪氣를 맞이하 奪取하면 邪氣를 재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邪氣를 寫할 수 있다. 方은 端正安靜이라는 말이다. 外引其皮 令當其門이라는 것은 肌表에서 經穴을 살피는 것이고, 左引其樞 右推其膚 微旋而徐推之라는 것은 鍼을 사용하는 綱領이며,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懈라는 것은 氣를 살피는 誠實하고 確實해야 한다는 것이고,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이라는 것은 出鍼하고 난 다음의 豫防·保護法이니, 이렇게 하면 眞氣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補가 될 수 있다. 用鍼之要 無忘其神이라는 것은 前篇을 總括해서 말한 것이니 상세한 뜻은 下章에 있다.”⁵³⁾고 하였다.

52) 楊: 沍는 謂溝渠니 卽腠理也라 沍는 謂水之逆流니 卽邪氣入腠理也라 八正虛邪入腠理時에 振寒이 起於毫毛하여 動形者也라 正邪者는 因身形飢用力하여 汗出腠理開한데 逢虛風中人하면 微而難知하여 莫見其精하니 四十二也라 邪氣初客하여 未病之病을 名曰萌芽니 上工知之요 其病成形이라야 下工知之니 四十三也라 ○馬: 此는 言邪氣之微而上工能蚤救之也라 洒淅은 惡寒貌요 動形者는 振動其形也라 八正神明論曰 虛邪者는 八正之虛邪氣也요 正邪者는 身形이 若用力汗出하여 腠理開에 逢虛風하면 其中人也微 故로 莫知其情하며 莫見其形이라하고 邪氣臟腑病形篇에 曰 邪氣之中人也 洒淅動形하고 正邪之中人也 微하여 先見於色이나 不知於其身하니 若有若無하며 若亡若存하며 有形無形하여 莫知其情이라하고 又八正神明論에 曰 上工은 救其萌芽하니 必先見三部九候之氣하여 盡調不敗而救之라 故로 曰上工이요 下工은 救其已成하고 救其已敗하니 救其已成者는 言不知三部九候之相失하여 因病而敗之也라하니라 上工은 論氣不論形하니 所以預取其氣하여 而蚤救其萌芽하고 彼下工은 則反是矣라 ○張: 閔士先이 曰 此는 言虛邪傷形而正邪中氣也라 虛邪者는 虛鄉不正之邪風이니 如春時之風이 從西方來요 夏時之風이 從北方來라 蓋人秉地之五行而成此形하니 是以로 五方不正之氣而傷人之形也라 正邪者는 風寒暑濕燥火天之正氣也니 天有此六氣而人亦有此六氣라 是以로 正邪中氣者는 同氣相感也니 中於氣 故로 先見於色이나 不知於其身하니 若有若無하며 若亡若存하며 有形無形하여 莫知其情이라 是故로 上工之取氣는 乃救其萌芽니 必先見三部九候之氣하여 盡調不敗而救之요 下工은 守其已成하고 救其已敗者는 不知三部九候之相失하여 因病而敗之也라 ●景岳: 邪氣는 言虛邪也라 虛邪之中人也甚 故로 洒淅動形하고 正邪之中人也微 故로 但先見於色而不知於身이라 此節은 與下章으로 互有發明하니 所當參閱이라 因敗其形者는 不知其難而反傷之也라 所在는 卽三部九候之義라 ○校釋: 洒淅은 振寒貌라 ○語譯: 正邪는 指勞動出汗後에 感受之風邪라

53) 楊: 謂知邪氣處인덴 氣處於皮膚脈肉筋骨所在하니 守其空穴門戶하여 療之니 四十四也라 明於調氣補瀉處所면 是處可補하고 是處可寫하여 不安爲之니 四十五也라 員은 謂之規니 法天而動하니 寫氣者也요 方은 謂之矩니 法地而靜하니 補氣者也라 樞는 謂鍼動也라 寫必用方 補必用員은 彼出素問이요 此是九卷方圓之法이니 神明之中에 調氣變不同故爾니 四十六也라 用鍼之道는 下以療病하고 上以養神이라 其養神者는 長生久視하니 此大聖之大意니 四十七也라 以上四十七章이 內經之大總이니 黃帝受之於岐伯 故로 誦之以閱所聞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言上工이 因氣以行補瀉之法이니 其要는 則在於守神也라 八正神明論에 曰 知其所在者는 知診三部九候之病脈處而治之라 故로 曰 守其門戶焉이라하니 正本節之所謂明於調氣補瀉所在와 徐疾之意와 所取之處也라 瀉必用圓과 補必用方은 八正神明論에 瀉必用方 補必用圓이라하니 岐伯이 曰 瀉必用方者는 以氣方盛也요 以月方滿也요 以日方溫也요 以身方定也니 以息方吸而納鍼하고 乃復候其方吸而轉鍼하며 乃復候其方呼而徐引鍼이라 故로 曰瀉必用方이니 其氣而行焉이라 補必用圓이니 圓者는 行也요 行者는 移也라 刺必中其營하고 復以吸排鍼也라 故로 圓與方은 非鍼也라하니라 其言如此하니 此節之方圓은 誤可知矣라 方瀉之時에 切而轉之 其氣乃行은 卽所謂方吸而轉鍼者是也요 疾入而徐出之 邪氣乃出은 卽所謂方吸而徐引鍼者是也라 又遙大其穴則邪氣之出者自速하니 此瀉法也라 其補之時에 外引其皮하여 令當其門하고 左手則引其樞하고 右手則推其膚하여 微旋而徐推其鍼하되 其鍼必端正安靜하고 堅心無懈는 卽所謂如待貴人하여 不知日暮하고 神無營於衆物者是也라 正欲微留其鍼하여 候氣下而疾出之하고 卽推其皮하여 以蓋其外門이면 則眞氣乃得存矣니 此補法也라 然이나 補瀉雖殊나 而用鍼之要는 當無忘人之神이니 八正神明論에 曰 養神者는 必知形之肥瘦와 營衛血氣之盛衰하니 血氣者는 人之神이라 不可不謹養也라하니라 ○張: 閔士先이 曰 知氣之所在者는 知病氣之所在而守其門戶니 門

【考 察】

1. 補瀉法에 있어 本篇에는 “寫必用員 補必用方”으로 되어 있고, 『素問·八正神明論』에는 “寫必用方 補必用員”으로 되어 있다. 本篇의 “寫必用員 補必用方”은 鍼術의 手法이나 形勢를 말하고, 『素問·八正神明論』의 “寫必用方 補必用員”中 方은 瀉法을 施行하는데 있어서의 時期(正氣方盛, 月廓方圓, 天時方溫)를 말하고 員은 補法을 施行할때의 手法(員滑하게 鍼을 조작하여 氣를 운행시키고 鬱滯된 곳을 引導함)을 말한다.

官能篇: 寫必用員--員은 員滑流利的 뜻임.

補必用方--方은 端正安靜의 뜻임

八正神明論: 寫必用方--方은 正氣方盛, 月廓方圓, 天時方溫 한 때를 말함.

補必用員--方은 員滑의 뜻으로, 鍼을

者는 邪循正氣之所出入也라 明於調氣者는 知氣之虛實而爲補瀉되 以疾徐之意而取之也라 寫必用員者는 圓滑而轉之라야 其氣乃行이라 疾內而徐出者는 疾而徐則虛也나 邪氣乃出則實者虛矣라 遙大其穴하여 以出其鍼則邪氣乃疾出矣라 補必用方者는 外引其皮하여 令當其穴門하고 左手引其樞轉하며 右手推其膚하여 微旋轉其鍼而徐推之하고 其鍼必端以正하며 安靜以候氣至하며 堅心而無懈惰하고 微留其鍼하여 候氣下而疾出之하고 推其皮以蓋其外門하면 則眞氣乃存於內矣라 用鍼之要는 貴在得神이니 蓋存己之神하여 以俟彼之神也라 朱衛公이 曰 按素問八正神明論에 曰 瀉必用方하고 補必用圓이라하니 蓋方與圓은 非鍼也요 乃用鍼之意耳라 且方圓者는 天地之象也나 天氣下降하면 氣流於地하고 地氣上升하면 氣騰於天하여 天地之氣가 上下相交라是以로 方圓之意는 皆可圓滑用之라 景岳: 員은 流利也요 切은 直迫病所也라 迎은 奪也요 遙는 搖同이라 用鍼員活而迎奪之면 則氣出乃疾 故로 可以寫라 方은 卽端正安靜之謂라 外引其皮 令當其門은 察穴於肌表也요 左引其樞 右推其膚 微旋而徐推之는 用鍼之樞要也요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懈는 候氣之誠確也요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은 出鍼之防護也나 眞氣得存 故로 可以補라 用鍼之要 無忘其神者는 總結前篇而言이니 義詳下章이라 ○按補瀉方員義가 與後章八正神明論之文으로 似乎相反이나 然이나 詳求其意하면 各有發明하니 不可謂其誤而忽也라 ○校釋: 寫必用員의 員은 指圓滑流利的鍼法이라 補必用方의 方은 指方正端靜而言이라 用鍼之要 無忘其神은 指用鍼主要目的이 在于調養神氣하고 推動生機하여 以扶正祛邪라

조작하여 氣를 운행시키고 鬱滯된 곳을 引導함

【直 譯】

鍼을 使用하는 일에는 반드시 法則이 있으니, 위로는 天光을 보고 아래로는 八正을 살펴 奇邪를 피해야 하며, 이들 내용을 百姓들에게 보여 虛實을 살피게 하므로써 그 邪氣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自然界의 風雨災害가 있거나, 歲氣가 不及되어 나타나는 異常氣候가 있는데 이를 救濟하려고 하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그 災殃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天忌를 알아야 비로소 鍼의 意義를 言及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옛 것을 본받고 當今에 이를 徵驗해 보되 微妙해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까지 볼 수 있어야 無窮한 境地에 通할 수 있다. 이런 境地는 어리석은 의사로서는 쉽게 알아 볼 수 없으나 훌륭한 의사는 貴하게 여기는 바이니, 그 形迹은 알기 어려우나 鬼神과 같이 髣髴합니다.

邪氣가 사람을 적중함에는 온 몸이 벌벌 떨리고, 正邪가 사람에게 적중되면 증세가 미미하여 먼저 顏色에는 나타나나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니, 이러한 기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없는 듯 하다가도 있는 듯 해지며, 形迹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여 그 實情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上工이 氣를 取할 때에는 萌芽의 狀態에서 救濟하고, 下工은 그것이 形成된 다음에 치료하고자 하여 몸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上工이 鍼을 使用할 때에는 氣의 所在를 알고 그 門戶를 지켜서, 氣를 調節하고 補瀉해야 할 곳과 徐疾의 意味와 取穴해야 할 곳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寫할 때에는 반드시 鍼을 圓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病所에 가깝게 鍼을 놓고 捻轉시키면 經氣가 運行되고, 鍼을 찌를 때는 빨리 찌르고 뺄 때는 서서히 빼면 邪氣가 빠져나가니, 찌를 때 鍼尖方向을 經脈運行方向과 반대로 찌르고 뺄 때 鍼을 흔들어 鍼空을 크게 넓히면 邪氣가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補할 때에는 端正하고 安靜되게 鍼을 使用해야 하는데 먼저 外皮를 잡아 經穴點을 정확히 잡은 뒤 左側 손으로 鍼의 中心을 잡고 右側 손으로 鍼을 皮膚속으로 밀어 넣어 약간 돌리면서 서서히 밀어 넣습니다. 鍼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端正하고 安靜되게 하며 마음을 굳건히 먹어 풀어

지지 않게 하고 약간 留鍼했다가 氣가 이르면 재빨리 鍼을 빼고 鍼空周圍의 皮膚를 문질러 그 外門(鍼空)을 막으면 眞氣가 보존되니, 鍼을 사용하는 關鍵은 그 神氣를 잊지 않는데에 있습니다.

第四章. 官能

【原文】

雷公이 問於黃帝曰 鍼論에 曰 得其人이면 乃傳이요 非其人이면 勿言이라하니 何而知其可傳이니잇고

黃帝曰 各得其人하여 任之其能 故로 能明其事니라

雷公이 曰 願聞官能은 奈何이니잇고

黃帝曰 明目者는 可使視色¹⁾하고 聰耳者는 可使聽音하고 捷疾辭語者¹⁾는 可使傳論²⁾하고 語徐而安靜하며 手巧而心審諦者는 可使行鍼艾하여 理血氣而調諸逆順하고 察陰陽而兼諸方하며 緩節柔筋而心和調者는 可使導引行氣하고 疾毒言語輕人者²⁾는 可使唾癰呪病³⁾하고 爪苦³⁾手毒하여 爲事善傷者⁴⁾는 可使按積抑痺라 各得其能하면 方⁴⁾乃可行하고 其名乃彰⁵⁾이라 不得其人이면 其功不成하고 其師無名 故로 曰 得其人이면 乃言이요 非其人이면 勿傳이라하니 此之謂也라 手毒者는 可使試按龜니 置龜於器下하여 而按其上에 五十日而死矣요 手甘者는 復生如故也니라

【字句解】

- (1) 捷疾辭語者: 말을 짚싸게 잘하는 사람.
- (2) 疾毒言語輕人者: 嫉妬가 심하고 惡毒하며 말이輕薄한 자를 말함.
- (3) 爪苦: 爪甲이 두텁고 거침.
- (4) 方: 各種 治療方法.

【校勘】

- 1) 可使視色: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可使視也’로 되어 있다.
- 2) 捷疾辭語者 可使傳論: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接疾辭給者 可使傳論而語餘人’으로 되어 있다.
- 3) 可使唾癰呪病: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可使唾癰呪病’으로 되어 있다.
- 4) 爲事善傷者: 『張馬合本』에는 ‘爲事善傷人者’로 되어 있다.
- 5) 其名乃彰: 『太素』卷十九 知官能에는 ‘其名乃章’으로 되어 있다.

【較註】

【1】各得其人 任之其能 故能明其事

楊馬張景岳은 “사람이 하늘에서 命을 받을 때에 各其 品性이 다르게 태어났고, 品性이 다르므로 能力 또한 각각 다르게 된다. 能力을 헤아려 사람을 쓰면 하는 일마다 다 道理에 합당해 지기 때문에 問答을 한 것이니, 醫師라면 이 德에 通達해야 한다.”⁵⁴⁾고 하였다.

【2】明目者 可使視色

楊은 “面部的 五行變色을 살펴보면 그 善惡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의 밝은 사람이다.”⁵⁵⁾고 하였고, 景岳은 “남이 못 보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눈이 밝은 사람이다.”⁵⁶⁾고 하였다.

【3】聰耳者 可使聽音

楊은 “病人의 五音을 들어 보면 그 吉凶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다.”⁵⁷⁾고 하였고, 景岳은 “남이 못 듣는 것을 제대로 듣는 사람

54) ●楊: 人受命於天에 各不同性하고 性既不同하여 其所能亦異에 量能用人則所爲必當 故로 因問答하니 以通斯德者也라 ○馬: 此는 言任人者各因其能하고 而未示以驗手毒之法也라 官人之能者는 任人之能이니 猶書之所謂在官人也라 ○張: 閔士先이 曰 官之爲言은 司也니 言各因其所能而分任之하여 以司其事 故로 曰官能이라 ○景岳: 任之其能은 因才而器使也라

55) 楊: 人之所能이 凡有八種이라 視面部五行變色하면 知其善惡하니 此爲第一明人也라

56) 景岳: 俱視獨見이 明目者也라

57) 楊: 聽病人五音即知其吉凶하니 此爲第二聰聽人也라

이 귀가 밝은 사람이다.”⁵⁸⁾고 하였다.

[4] 捷疾辭語者 可使傳論

楊은 “썰삭게 말을 할 줄 알면 事物에 대한 區分도 敏捷할 것이니, 이것이 事物을 說明하여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 번째로 智慧가 있어 事物을 잘 分別하는 사람들이다.”⁵⁹⁾고 하였고, 景岳은 “開導, 勸戒, 解疑, 辯正과 같은 것들이 다 이른바 傳論인 것이다.”⁶⁰⁾고 하였다.

[5] 語徐而安靜 手巧而心審諦者 可使行鍼艾 理血氣而調諸逆順 察陰陽而兼諸方

楊은 “精神이 맑고 性品이 밝기 때문에 安靜할 수 있고, 行動이 道理에 合當하여 손 기술에 밝은 사람은 機微를 妙하게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審諦라고 한 것이다.”⁶¹⁾고 하였고, 馬는 “病人의 氣色을 살피고 病人의 소리를 들으며 論議된 말을 病人에게 傳達한 다음에 鍼을 놓아야 한다.”⁶²⁾고 하였으며, 景岳은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苟且스럽지 않고, 安靜스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지럽지 않고, 손 기술이 교묘한 사람은 일의 輕重이나 속도를 오묘하게 맞출 수 있고, 마음으로 사물의 본질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精微하여 사물을 자세히 살필 수 있어 빠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任務을 이겨낼 수 있다.”⁶³⁾고 하였다.

[6] 緩節柔筋而心和調者 可使導引行氣

楊景岳은 “導引이라는 것은 다만 血氣를 運行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損傷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筋骨이 부드럽고 마음이 和緩한 사람만이 임무를 이겨낼 수 있으니, 그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按摩士들을 보면 利害關係를 알지 못하고 全的으로 剛

強한 手法만을 사용하여 사람을 지극히 피로하게 하고 사람의 關節을 억지로 열어 놓으며 元氣를 달아나게 하니, 어느 것보다 해가甚하다. 病者도 또한 按摩法이라는 것은 當然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할지 몰라도 바로 堪當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억지로 아픔을 참고 안마를 받으니, 대부분 몸이 健康한 사람은 약해지게 되고 弱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여 病을 없애지 못할 뿐 아니라 다만 해만 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 이와 같은 무리를 활용할 때에는 慎重할 줄 알아야 한다.”⁶⁴⁾고 하였다.

[7]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

楊은 “마음에 질투가 많고 惡毒하며 말이 좋고 사람이 가벼워, 두 가지 악한 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敬畏하기 때문에 침을 뱉고 저주하게 된다.”⁶⁵⁾고 하였고, 景岳校釋은 “사람이 입이 거칠고 毒舌을 잘 해대는 것도 또한 先天의인 稟賦때문인 것이니, 모든 일에 利로운 점은 없으나 오직 疾病에다 대고 침 뱉고 저주하는 데에는 이로울 것이다.”⁶⁶⁾고 하였다.

[8] 爪苦手毒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楊景岳校釋語譯은 “按積抑痺도 역시 上文의 導引行氣의 等屬이다. 그러나 積과 痺가 堅固할 때에는 손매가 매서운 아니면 깨뜨릴 수 없으니, 같은 技術일지라도 運用에 輕重이 있어야 한다.”⁶⁷⁾고 하였다.

64) 楊: 身則緩節柔筋하고 心則和性調順하니 此爲第五調柔人也라 調柔之人이 導引則筋骨易柔하고 行氣則其氣易和也라 ●景岳: 導引者는 但欲運行血氣요 而不欲有所傷也라 故로 惟緩節柔筋而心和調者라야 乃勝是任하니 其義를 可知라 今見按摩之流는 不知利害하고 專用剛強手法하여 極力困人하고 開人關節하며 走人元氣하니 莫此爲甚이라 病者도 亦以謂法所當然이라하나 卽有不堪이어는 勉強忍受하니 多見强者는 致弱하고 弱者는 不起하여 非惟不能去病이요 而適以增害하니 用若輩者는 不可不爲知愼이라

65) 楊: 心疾毒하고 言好輕人하여 有此二惡이면 物所畏之라 故로 可使之唾呪니 此爲第六口苦人也라

66) ●景岳: 人之惡口毒舌者도 亦由稟賦니 諸無所利而獨利於唾呪疾病이라 ○校釋: 唾癰呪病은 古代呪由治病의 方法이니 爲精神療法之一이라

67) 楊: 爪苦手毒하면 近物易傷하니 此爲第七苦手人也라 ●景岳: 按積抑痺도 亦上文導引行氣之屬이라 然이나 積堅痺固에 非爪苦手毒者면 不能破하니 術若相類而用有輕重也라 ○校釋: 爪苦手毒의 爪는 指甲이요 苦는

58) 景岳: 俱聽獨聞이 聰耳者也라

59) 楊: 其知接疾이면 其辨敏給하니 此可爲物說道하여 以悟人이니 此第三智辨人也라

60) 景岳: 如開導勸戒解疑辯正之屬이 皆所謂傳論이라

61) 楊: 神清性明 故로 安靜也요 動合所宜하여 明手巧者는 妙察機微 故로 審諦也니 此爲第四靜慧人也라

62) 馬: 蓋欲視病人之色하고 聽病人之聲하고 傳所論之語於病人하여 以行鍼矣라

63) 景岳: 語徐者는 不苟하고 安靜者는 不亂하고 手巧者는 輕重疾徐에 有妙하고 心審諦者는 精思詳察하여 無遺 故로 可勝其任이라

[9] 各得其能 方乃可行 其名乃彰 不得其人 其功不成 其師無名 故曰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 此之謂也

楊馬張·景岳은 “각자의 能力을 活用하여 道理에 合當하게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었다’고 한 것이니 만일 제대로 된 사람을 얻지 못하면 道를 傳해 주지 말아야 한다.”⁶⁸⁾고 하였다.

[10] 手毒者 可使試按龜 置龜於器下而按其上 五十日而死矣 手甘者 復生如故也

楊馬張·景岳은 “손이 매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거북을 만져보는 방법으로 시험해보면 손이 매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의 손에 凶과 善이 있는 것은 음식에 달고, 쓴맛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甘과 毒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니, 毒이라는 것은 바로 苦의 뜻이다.”⁶⁹⁾고 하였다.

【考 察】

1. 본 단원의 앞 머리에는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으로 되어 있고, 뒷 문장에는 “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는 ‘傳’字와 ‘言’字가 잘못 倒置된 것으로 보인다.

2.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을 해석함에 있어

指形態粗惡이요 手毒은 手狠의意思라 ○語譯: 按積抑痺의 抑은 治也라

68) ●楊: 各用其能하여 以有所當 故로 曰得人이니 如不得人이면 道不可傳也라 ○馬: 以導引行氣와 以唾癰呪病과 以按積抑痺는 非各得其人이면 不可也라 ○張: 不得其人 其功不成은 蓋聖人欲得其人이면 量材而官하여 授任而治하니 已不與於其間而總司其成也라 ○景岳: 氣交變大論에 曰 得其人不教면 是謂失道요 傳非其人이면 慢泄天寶라하니라

69) 楊: 毒手按器而龜可死요 甘手按之而龜可生이니 但可適能而用之요 不可知其所以然也라 此爲第八甘手人也라 ●馬: 卽如任手毒者엔 試以按龜之法이면 則其手之甘毒을 自別矣라 蓋遇人之手有凶有善은 猶用味之甘苦故로 卽以甘毒名之니 毒은 卽苦也라 ○張: 試按龜者는 言手毒之人不可使之行鍼이니 卽靈壽之物도 亦遭其毒手은 而況病人乎야 惟手巧而甘味者라야 能活人也라 ○景岳: 龜能運任脈하여 其息以耳而導引伏氣하니 所以靈而多壽하여 不易於死 故로 可用此하여 以驗人之手毒與否라 手甘者는 非以味言이니 卽不毒之謂라

楊은 질투심이 많고 惡毒하며 말이 좋고 사람을 輕視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게 된다고 하였고, 景岳·校釋은 사람이 입이 거칠고 毒舌을 잘 해대는 사람은 疾病에다 대고 침 뱉고 저주하는 데에 이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楊의 견해가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단원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所任을 맡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에 祝由法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直 譯】

雷公이 黃帝에게 質問하였다. “鍼論에 말하기를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傳해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말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傳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黃帝가 말씀하였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雷公이 말하였다. “官能이 무엇이지 듣고 싶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눈이 밝은 사람은 色을 잘 구분할 수 있고, 귀가 밝은 사람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며, 말을 짚싸게 하는 사람은 議論을 잘 傳할 수 있고, 말을 천천히 하고 마음이 安靜되어 있으며 손 기술이 교묘하고 마음으로 사물을 잘 살피는 사람은 鍼艾를 施行하여 血氣를 다스리므로서 모든 氣血의 逆順을 調節하고 陰陽을 살피 모든 治療方法과 겸하여 活用할 수 있으며, 關節과 筋肉이 부드럽고 마음이 和緩한 사람은 導引으로 氣를 잘 運行되게 할 수 있고, 嫉妬가 많고 마음이 毒하며 言語가 輕薄한 사람은 癰疽病에 침을 뱉고 疾病을 저주할 수 있으며, 손이 매워 사물을 잘 傷하게 하는 사람은 積聚와 痺證을 按摩해 치료할 수 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면 각종 治療方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그 사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지 못하면 功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스승의 명에도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말해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傳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손이 毒한 사람은 거북이를 만져서 시험해 볼 수 있으니, 거북이를 그릇 아래에 놓은 다음 손으로 만지작거리기를 五十日쯤 하면 죽게

되고, 손이 부드러운 사람은 五十日쯤 손으로 만져대도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다.”

IV. 意 譯

黃帝가 岐伯에게 물으셨다. “내가 夫子에게 九鍼에
대해 들어보니,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나 내 이를 推論하여 체계를 세웠습니다. 내 이
를 暗誦해 보일 터이니 그대가 이 理論을 들어보고 잘
못된 부분을 나에게 이야기 해주어 바르게 잡아주었으
면 합니다. 그리 해주면 후세에 오래도록 傳해지고 憂
患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제대로 된 사
람이면 傳해줄 것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말
해주지 않겠습니다.”

岐伯이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하였다. “聖王
의 道를 듣고자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鍼을 사용하는 道理는 반드시
形氣의 所在와 左右上下와 陰陽表裏와 血氣多少와 經
氣 運行의 逆順과 經氣가 出入하는 곳을 알아야 잘못
된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結聚된 곳을 풀 줄 알아
야 하며, 虛한 곳을 補하고 實한 곳을 寫할때에 上下에
있는 氣穴을 알아야 하며, 四海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확실히 통해야 하며, 病의 所在가 寒熱淋瀝에 따라 輪
穴을 달리함을 알아야 하며, 氣를 고르게 할 줄 알아야
하며, 經隧에 밝아 左右로 肢絡이 어디에서 만나는 지
를 다 알아야 합니다. 寒熱이 다룰 때에는 이를 調和
시켜야 하고, 虛實이 가까이 섞여 있을 때에는 이를 깨
뜨려 通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左右가 고르지 않을
때에는 左右 脈을 붙잡아 진찰해야 하니, 逆順의 理致
에 밝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陰陽이 치우치지 않았
기 때문에 病이 일어난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本末
과 寒熱을 살펴 邪氣가 있는 곳을 알면 몇 번을 刺鍼
해도 위태롭지 않으니, 九鍼의 용도를 알아야 刺鍼의
道理가 끝납니다.

五輪의 道理에 밝아 鍼刺時 徐疾의 所在와 經脈의
屈伸出入에 다 條理가 있어야 합니다. 陰과 陽을 이야
기 해 보면 이는 五行에 相合하니 五藏六府에도 陰陽
五行의 이치가 있고 四時八風에도 다 陰陽이 있습니다.

陰陽五行은 各其 자기 位置가 있고 明堂에 相合하여
色이 나타나는 部位가 있으니, 五藏六府에 病變이 있으
면 그에 상응하는 面部에서 病色을 살필 수 있고, 面部
의 左右上下로 病色이 나타나면 어느 經이 차고 더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皮膚의 寒溫과 滑濇을 살피면 어
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고, 橫膈膜을 기준으로 삼아 病
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經
脈循行의 道理를 파악한 다음에 鍼을 사용하는데 補할
때에는 鍼을 적게 사용하여 조심조심 刺入하고 원하는
부위까지 깊이 들어간 다음에 留鍼해야하기 때문에 徐
徐히 刺入하는 것입니다. 大熱이 上部에 있으면 熱을
밀어 내려가게 하고, 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
우에는 끌어 내려서 없애야 하는데 診察해 보아서 먼
저 아픈 곳을 항상 우선적으로 取해야 합니다. 大寒이
체표에 있을 때에는 留鍼하여 補하는데 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合穴을 寫하고 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뜸이 마땅합니다. 上氣가 不足하면 氣를 끌어 올려
盛하게 하고, 下氣가 不足하면 留鍼隨氣의 方法으로 아
래의 氣를 補하며 陰陽이 다 虛하면 艾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寒氣가 매우 厥逆되어 뼈 주위의 肌肉
이 陷下하고 寒氣가 무릎까지 지나가면 下陵의 三里穴
에 뜸을 뜹니다. 寒邪가 陰絡을 지나 이곳에 머물러 있
거나 속으로 들어가면 鍼을 推入하여 行散시켜야 하고,
經脈이 陷下된 경우에는 오직 灸法만이 이에 해당되고,
또 絡脈이 結聚되어 뻣뻣해져 있는 경우에도 또한 灸
法을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病이 들어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겠으면 男子는 陽蹻가 經이 되고 陰蹻가 絡이 되
며, 女子는 陰蹻가 經이 되고 陽蹻가 絡이 되므로 男子
는 陰蹻를 취해서는 안되고 女子는 陽蹻를 취해서는
안되니 훌륭한 의사들이 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道理
를 다 파악하면 鍼을 活用하는 방법이 完備됩니다.

鍼을 使用하는 일에는 반드시 法則이 있으니, 위로
는 日月星辰의 天光을 보고 아래로는 八正을 살펴 奇
邪를 피해야 하는데, 이들 내용을 百姓들에게 보여 虛
實을 살피게 하므로써 그 邪氣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합
니다. 自然界의 風雨災害가 있거나, 歲氣가 不及되어
나타나는 異常氣候가 있을때 이를 救濟하려고 하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그 災殃을 받게 됩니다. 그
러므로 ‘반드시 天忌를 알아야 비로소 鍼의 意義를

及할 수 있으니, 지나간 옛 것을 본받고 當今에 이를 徵驗해 보되 微妙해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까지 볼 수 있어야 無窮한 境地에 通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런 境地는 어리석은 의사로서는 쉽게 알아 볼 수 없으나 훌륭한 의사는 貴하게 여기는 바이니, 그 形迹은 알기 어려우나 鬼神과 같이 髣髴합니다.

邪氣가 사람을 적중함에는 온 몸이 벌벌 떨리고, 正邪가 사람에게 적중되면 증세가 미미하여 顏色에는 먼저 나타나더라도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니, 이러한 기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없는 듯 하다가도 있는 듯 해지며, 形迹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여 그 實情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上工이 氣를 取할 때에는 萌芽의 狀態에서 救濟하고, 下工은 그것이 形成된 다음에 치료하고자 하므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上工이 鍼을 使用할 때에는 氣의 所在를 알고 그 門戶를 지켜서, 氣를 調節해 補하고 寫할 장소와 徐疾의 意味와 取穴해야 할 곳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寫할 때에는 반드시 鍼을 圓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病所에 가깝게 鍼을 놓고 捻轉시키면 經氣가 運行되고, 鍼을 찌를 때는 빨리 찌르고 뺄 때는 서서히 빼면 邪氣가 빠져나가니, 찌를 때 鍼尖方向을 經脈運行方向과 반대로 찌르고 뺄 때 鍼을 흔들어 鍼空을 크게 넓히면 邪氣가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補할 때에는 端正하고 安靜되게 鍼을 使用해야 하는데 먼저 外皮를 잡아 經穴點을 정확히 잡은 뒤 左側손으로 鍼의 中心을 잡고 右側손으로 鍼을 皮膚속으로 밀어 넣되 약간 돌리면서 서서히 밀어 넣습니다. 鍼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端正하고 安靜되게 하며 마음을 굳건히 먹어 풀어지지 않게 하고, 약간 留鍼했다가 氣가 이르면 재빨리 鍼을 빼고 鍼空周圍의 皮膚를 문질러 그 外門(鍼空)을 막으면 眞氣가 보존되니, 鍼을 사용하는 關鍵은 그 神氣를 잊지 않는데에 있습니다.

雷公이 黃帝에게 質問하였다. “鍼論에 말하기를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醫術을 傳해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말해 주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傳해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黃帝가 말씀하였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雷公이 말하였다. “官能이 무엇이지 듣고 싶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눈이 밝은 사람은 色을 잘 구분할 수 있고, 귀가 밝은 사람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며, 말을 썩새게 하는 사람은 議論을 잘 傳할 수 있고, 말을 천천히 하고 마음이 安靜되어 있으며 손 기술이 교묘하고 마음으로 사물을 잘 살피는 사람은 鍼灸를 施行하여 血氣를 다스리므로서 모든 氣血의 逆順을 調節하고 陰陽變化를 살펴 모든 治療方法과 겸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關節과 筋肉이 부드럽고 마음이 和緩한 사람은 導引으로 氣를 잘 運行되게 할 수 있고, 嫉妒가 많고 마음이 毒하며 言語가 輕薄한 사람은 癰疽病에 침을 댄고 疾病을 저주할 수 있으며, 손이 매워 사물을 잘 傷하게 하는 사람은 積聚와 痺證을 按摩해 치료할 수 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면 각종 治療方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그 사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지 못하면 功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사람 스승의 명에도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말해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傳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손이 毒한 사람은 거북이를 만져서 시험해 볼 수 있으니, 거북이를 그릇 아래에 놓은 다음 손으로 만져작거리기를 五十日쯤 하면 죽게 되고, 손이 부드러운 사람은 五十日쯤 손으로 만져대도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다.”

V. 結 論

1. 第一章의 “行之逆順”은 經脈의 走行이 正常的이면 順, 經脈의 走行이 非正常的이면 逆이라고 解釋하는게 이해하기 쉽다.

2. 第一章의 ‘謀伐有過’에서 ‘謀’가 『太素』에는 ‘誅’로 되어 있는데 文脈上 이것이 옳다.

3. 第一章의 ‘寒熱淋露’는 문맥상 寒熱은 病所의 증상, 淋露는 病의 원인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4. 第一章의 “右不調 把而行之”는 左右의 脈이 고르지 않을 때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5. 第一章의 ‘陰陽不奇’의 奇는 分, 奇異, 不遇, 倚의 의미로 해석된다.

6. 第二章의 ‘屈伸’은 體位의 屈伸, 經脈流注의 屈伸

의 두 가지 學說로 대별된다.

7. 第二章의 “膈有上下 知其氣所在”는 生理的으로는 膈 위의 清氣와 膈 下의 濁氣로 해석할 수 있고, 病理的으로는 病變이 上下, 혹은 어느 臟器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第二章의 “稀而疏之 稍深以留”의 문구중 ‘稀而疏之’는 鍼을 적게 놓는 方法, ‘稍深以留’는 鍼을 깊게 놓고 留鍼하는 方法이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刺入하는 方法으로 해석된다.

9. 第二章의 “大寒在外 留而補之 入於中者 從合寫之”의 문구중 ‘合’은 ‘合穴’을 뜻한다.

10. 第二章의 “上氣不足 推而揚之 下氣不足 積而從之”의 문구는 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鍼을 어떤 식으로 操作하라는 것인지는 向後 연구가 진일보 이루어 저야 하겠다.

11. 第二章의 ‘男陰女陽’이 『太素』와 『甲乙』에는 ‘男陽女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陰陽의 理致上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2. 第三章의 補瀉法에 있어 本篇에는 “寫必用員 補必用方”으로 되어 있고, 『素問·八正神明論』에는 “寫必用方 補必用員”으로 되어 있다. 本篇의 “寫必用員 補必用方”은 鍼術의 手法이나 形勢를 말하고, 『素問·八正神明論』의 “寫必用方 補必用員”中 方은 瀉法을 施行하는데 있어서의 時期를 말하고 員은 補法을 施行할때의 手法을 말한 것이다.

13. 第四章中 앞 文章에는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으로 되어 있고, 뒤 文章에는 “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傳’字와 ‘言’字가 잘못 倒置된 것으로 보인다.

14. 第四章의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은 呪由法의 一種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參 考 文 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馬蒔: 黃帝內經靈樞經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6.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7.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8.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0. 廓露春: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3.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4.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オリエント出版社, 1988.
1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6.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7.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